

제주도 농촌마을의 계결사체와 사회통합*

김 석 준**

目 次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V. 계결사체와 사회통합
II. 연구방법과 범위	VI. 결론
III. 조사대상 마을의 일반적 배경	<참고문헌>
IV. 계결사체의 유형과 운영방식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계결사체¹⁾와 관련된 연구자의 선행연구들(김석준 1986, 1987, 1988)을 재검증하면서 보완·심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도됐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연구들에 일관된 연구 주제를 다각적·반복적으로 접근할 때 달성할 수 있으리라 연구자는 기대한다.

연구자의 1986년의 연구는 다른 공동연구(부만근 외 1986)를 수행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serendipity)’ 관계(Merton 1968)에 이끌려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계결사체 참여가 주민간의 사회적 유대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서설적으로 거론했지만, 원래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부분적으로 이차 분석했고 제주도의 중간간지역 3개 마을에 대한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1987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1) 계결사체라는 용어는 계의 성격 규정에 관한 공동체론(대표적으로, 김삼수 1964)과 결사체론(최재석 1969, 김필동 1989 등)의 두 입장중 후자의 견해를 본 연구자가 지지함을 함축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연구자는 계를 ‘특정 지역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초월하면서 어떤 이해 또는 일련의 이해들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구성되는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라고 정의한다(김석준 1988: 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와 계결사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함의의 구분 이외에는 전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 진성기(1975)가 보고했듯이 제주도에서는 계를 ‘계’ 또는 ‘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들 역시 본문을 전개하면서 필요하면 달리 언급하지 않고 활용할 것임도 덧붙여 두겠다.

제한된 조사결과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본 연구자로 하여금 그후 이 주제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설계·진행하게 만든 실마리라는 의의를 갖는다.

그 후속 작업의 하나인 1987년의 연구는 조사대상은 다르지만 이 역시 다른 연구(이순형 외 1987)에 사용된 자료를 이차 분석했다는 점에서 1986년의 것과 동일한 한계를 지나 조사대상 마을의 성격이 그와는 서로 달랐다. 그리고 이 1987년의 연구를 해나가면서 연구자는 농촌의 계결사체와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에 관한 보다 정리된 관점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988년에 제주도내 24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조사연구를 직접 실행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계결사체와 사회적 유대의 관계에 관한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관점을 분리해내고 그에 기초한 가설들을 추출한 후 각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바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리의 연구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통합론과 격리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²⁾ 농촌사회에 관한 전자는 주민들의 계결사체 참여가 활발한 마을에서는 계결사체에의 교차가입과 연결망의 重層化로 주민간의 사회적 유대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사회통합의 정도도 높을 것임을 예견한다(대표적으로, 伊藤亞人 1982). 반면 후자(예를 들어, 최은영 1984)는 계결사체 참여 자체가 특정의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며, 때문에 높은 통합이나 사회적 유대의 강화는 마을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주된 참여자들만의 구획적 현상일 것이라 예측하여 전자에 대립한다. 본 연구자의 1988년의 연구도 후자인 격리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거니와 본 연구는 다음아닌 이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재검토를 겨냥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세 선행연구와는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는 의외와 성격을 지닌다. 그중 하나는 선행연구들이 모두 양적 방법을 동원한 것인데 반해 본 연구는 질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있게 된다. 이는 우리의 주제에 보다 깊이 접근하려는 연구자의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서술해보겠다. 다른 하나는 기왕에 택한 질적 방법의 장점을 살려 양적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변인들의 도입을 본 연구에서는 모색한다는 점이다. 지금 도입될 변인들은 농촌사회의 변화과정을 포착가능케

2) 이에 대한 자세한 추론은 김석준(1988 : 119-122)을 참조바람.

하는 것들로서 특히 이촌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는 위의 통합론과 격리론이 농촌의 계절사체에 부여하는 그 존재의미를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본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과 범위

사회과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인식론적 논쟁에 있어서는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대립이 화해하기 어려울 만큼 뿌리가 깊다(Burrell and Morgan 1980 : 1-9). 이 맥락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간의 교류나 통합은 양자가 지식의 근거에 관한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해 있는 탓에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간주되기 쉽다. 그런 시도는 선택되어진 인식론적 입장과 실제의 연구기법은 상충해야한다는 패러다임론적 견해(예로, Filstead 1979)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패러다임론의 교조적 자세를 고집하지 않고 연구 기법이란 연구의 목적과 문제에 따라 선정될 필요가 있다는 실용적 입장을 계승하려고 한다. 이는 패러다임론의 적극적 비판자인 Bryman (1992)이나 Denzin (1970) 등이 주장하는 방법론적 다원화 전략 (strategies of multiple triangulation)을 수용하여, 양적 방법에 의한 연구자의 선행 연구결과를 질적 방법에 의존해 반복 관찰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원화 전략의 여러 형태 가운데서도 특히 방법간 다원화 전략 (between or across method triangulation)의 이점을 취하는 셈이 될 것이다.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참여관찰의 기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사례로서 선택된 연구 대상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S리인데 이 마을은 연구자의 1988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중의 하나였다. 다음 장에 상술하겠지만, 이 마을은 조사 당시 약 75가구의

- 3) 연구자는 이와 관련된 추론을 몇몇 문헌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김석준 1988 : 118-119). “.....공리적 계는 그간의 농촌개발조직이나 정부가 주도한 하향적 운동조직들(가령 새마을 운동의 하부 조직들)이 그 기능의 적지 않은 부분을 흡수·병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계의 구성과 기능수행의 방법이 대체로 성원들의 노동력 결집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량의 이촌·이농이 발생하면 자연히 구성기반을 잃게 되어(최재석 1987) 쇠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농촌이 이촌자에 대한 배후지 내지는 후생지원지로 전락함(김춘동 1983)과 동시에 상업화한 농업은 자금의 계속적 동원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전통적 의례에 충당해야 할 자금 등은 다른 자금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영리적 계의 구성을 항상 필요로 할 것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촌과 이농이 물고온 농촌사회의 해체위기는 역으로 주민들의 반작용을 유도해내어 쇠약해가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을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표출적 계의 확산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본 연구에서도 유효한 가설로서 검토해볼만 할 것이다.
- 4) 다원화 전략의 주요 형태로는 이론적 다원화, 자료의 다원화, 분석단위의 다원화, 연구자의 다원화, 방법의 다원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김경동·이은숙(1986 : 587-595)을 볼 것.

자연마을로 참여관찰에 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었고 계결사체 참여도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선행 연구와 예비답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선택됐다. 예비답사는 1989년 7월 11일에,⁵⁾ 1차 본조사는 1990년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차 본조사는 1990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이루어졌고, 이 2차 본조사의 기간중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에는 조사마을에 거주하면서 관찰을 했다. 그 후에도 수차례 마을을 방문하면서 조사가 진행됐음은 물론이다.

조사기간중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계문서의 수집과 계결사체에 관한 주민들의 담화를 집중적으로 채록하고⁶⁾ 계의 구성과 관련된 사회적 연결망의 확인에 주력했다. 동시에 마을내 다른 사회조직들, 예컨대 친족관계와 문중조직, 그리고 부녀회, 청년회 등의 공식조직과 행정조직 등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자료들을 수집해나갔다. 또한 모임이 있을 때는 직접 참여하여 관찰도 함으로써 질적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주민들의 생애사와 가족사에 대해서도 소홀치 않으려 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결과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농촌사회속에서 계결사체와 마을 주민들의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련한 내용과 의미들의 분석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마을내에 형성된 계결사체의 유형과 존재방식을 사례분석하면서 그 변화상과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를 드러내보인 후, 둘째로 계결사체가 과연 마을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존속에 어떤 의미-통합의 기제인가 아니면 격리의 기제인가-를 지니는지를 해석해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촌과 같은 농촌사회의 변동이 계결사체의 존재와 그것의 의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변동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보고자 한다.

Ⅲ. 조사대상 마을의 일반적 배경

S리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약 20km쯤 떨어져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⁷⁾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제주군 A읍에 속한다. 이 마을에서 해안쪽으로 약 8km쯤 내려가면 읍출장소와 단위농협이

- 5) 실제로는 이 때의 예비답사가 3차 예비답사였다. 이 마을에 대한 예비답사를 하기 전인 1988년 1월에 제주도의 4개 농촌 마을을 답사하고, 6월에 그 중 2개 마을을 다시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답사결과 연구의 진행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들을 포기하고 이듬해에 S리를 조사지로 삼게 된 것이다.
- 6) 본 연구가 택한 연구방법의 성격상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담화를 직접 인용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채록된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그에 가까운 표준어로 번역해서 제시하겠다. 이는 논의를 간결히하고 관심있는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용이하게 소통·공유하려는 방편이다.
- 7) 제주도에서 해발 200-600고지에 위치한 목축과 밭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마을들을 통칭할 때 중산간마을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중산간마을에 대한 개략적 소개는 김석준(1986)을 볼 것.

있는 H리가 나오고 여기서 S리의 기초적인 행정업무와 농협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H리는 제주시 경계밖에 위치한 해안 마을이지만 제주도를 일주하는 도로가 지나고 제주시의 시내 버스가 이곳을 서부종점으로 삼고 있어서 S리에서 이곳까지 나오면 시내 출입도 비교적 손쉬운 편이다.

S리는 인근에 두 개의 중산간 마을을 끼고 있다. S리 마을 입구 갈림길에서 H리로 가는 북동쪽 약 2.5Km 지점에 중산간도로와 교차하는 J리가 있고, 갈림길에서 동남쪽으로 들어서서 약 2.5km를 가면 K리를 만난다. 이 세 마을은 서로 근접해 있는 덕택에 J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간의 왕래도 적지 않다. 이는 J리에 보건진료소와 세 마을의 학생들이 다니는 국민학교가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마을 남쪽으로 한참을 가면 리경계내에 제주시와 모슬포를 잇는 서부산업도로가 관통해 있고 최근들어 그 주변에 법무부산하의 소년원과 시멘트 및 석재가공공장인 G기업, 승마공원, 자동차면허시험장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이 들어선 지역은 원래 S리 공동목장지역중 일부였지만 이들과 마을주민간의 연결은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S리의 북쪽 마을입구로 들어서면 마을 남쪽에 나즈막한 동산(명덕동산)과 멀리 한라산을 배경으로 가옥들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약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옥들은 마을을 순환하듯 돌아간 마을 안길을 따라 그 양편으로 들어서 있다. 1990년 당시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로는 마을의 가구수가 65호 였지만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농가 65호, 비농가 10호이고 인구는 남자 143명, 여자 145명 총 288명으로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리경계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공식통계에는 잡혀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집된 자료(김봉옥 1980)에 의하면 S리의 인구는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1780년에 33가구에 남자 113명, 여자 151명이던 것이 1928년에는 133가구, 남자 252명, 여자 260명으로 늘었다가 1978년에 와서는 95가구, 남자 183명, 여자 200명으로 감소한다. 현재의 75가구도 1978년에 비하면 20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이 마을의 이촌과 이농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반영한다.

마을 전체는 5개반으로 나뉜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내의 구역을 못골, 동골(알동네), 셋동네, 한질동네 등으로 구분하는 데 더 익숙하다. 흥미로운 것은 연못이 있다해서 마을 서북쪽 구역을 못골이라 부르는데 이 마을의 11가구 제주 양씨중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기에만 몰려 산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다른 성씨가 이 구역에 와서 살면 잘 안되고 양씨들만 잘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⁸⁾ 11가구의 제주 양씨 이외에 마을의 주요 성씨로는 제주 고씨 12가구, 풍천 임씨 10가구, 수원 백씨 9가구가 있고 제주 부씨 4가구 외에 기타 성씨가 나머지를 구성한다.

마을의 동북쪽 길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는 주민들이 비념을 드리는 할망당이 오래된 팽나무와 수목으로 에워싸여 있다. 마을안에 다른 종교기관이 없어 주민들에게 이 할망당은 중요한 종교활동대상이 된다. 마을안에는 개인에게 임대된 부녀회구판장이 한 군데 있어서 마을의 수퍼마켓 역할과 주민간의 각종 연락사항을 주고 받는 장소로 이용된다. 이 구판장은 또 농사일을 하기 힘든 여자 노인들이 앉아 소일하거나 밭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자리를 갖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점의 구실도 하고 있다. 마을 남쪽 끝에는 1974년에 지은 23평 규모의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내 여러가지 공식적 회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회관내에는 마을문고도 설치되어 있다.

마을회관 뒤편의 동산에 오르면 마을 전체가 다 보이고 멀리 북쪽에 바다까지도 시야에 들어온다. 동산에서 내려다 본 마을은 가옥과 가옥사이에 감귤과수원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마을 주위의 농경지는 이 마을의 주작물이 밭작물(주로 참깨, 보리, 콩)과 감귤임을 말해주는 있다.

이 동산에는 또 오래된 유적인 石棺이 있고 哭班祭壇이라는 작은 돌비석이 하나 있다. 이 곳은 과거 국상을 당했을 때 선비들이 모여 북향사배하고 슬퍼하던 장소라고 한다. 이 동산의 유래가 그렇듯이 S리는 제법 오래된 설촌역사를 가진다. 제주도 전역을 유린했던 1948년의 4.3사건 때 마을의 주요기록들이 소실되어버렸지만 전하는 말로는 480-500여년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간다고 한다. 백여년전만 해도 인근의 J리와 합쳐져 同井里라 했는데 그후 행정적으로 두 마을로 분리됐다고 한다.

제주도의 여러 중산간 마을들도 그랬지만 4.3사건 때 이 마을은 완전히 소각되고 주민들은 해안 마을로 이주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서 주민들은 인근 J리에 임시수용됐다가 1950년부터 마을복구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리는 결코 가뭄이 없는 사회적 변화를 맞았다. 마을의 주요인사들이 다수 다치거나 사망하고, 이주한 후

8)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 성씨가 이 마을에 거주하지만 양씨와 다른 성씨간의 사회적 구분과 거리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재차 음미해보겠다. 참고로 각 성씨별로 이 마을에 거주한 기간은 고씨가 25대, 양씨가 20대, 백씨가 15대, 부씨 12대, 임씨 9대라는 자료(제남신문 1979년 2월 19일자 "제주의 향사")도 있다.

마을로 귀환하지 않은 주민도 여럿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기존 사회적 관계는 와해되고 그것의 재구성은 물론 우리의 관심사인 계를 포함한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가 요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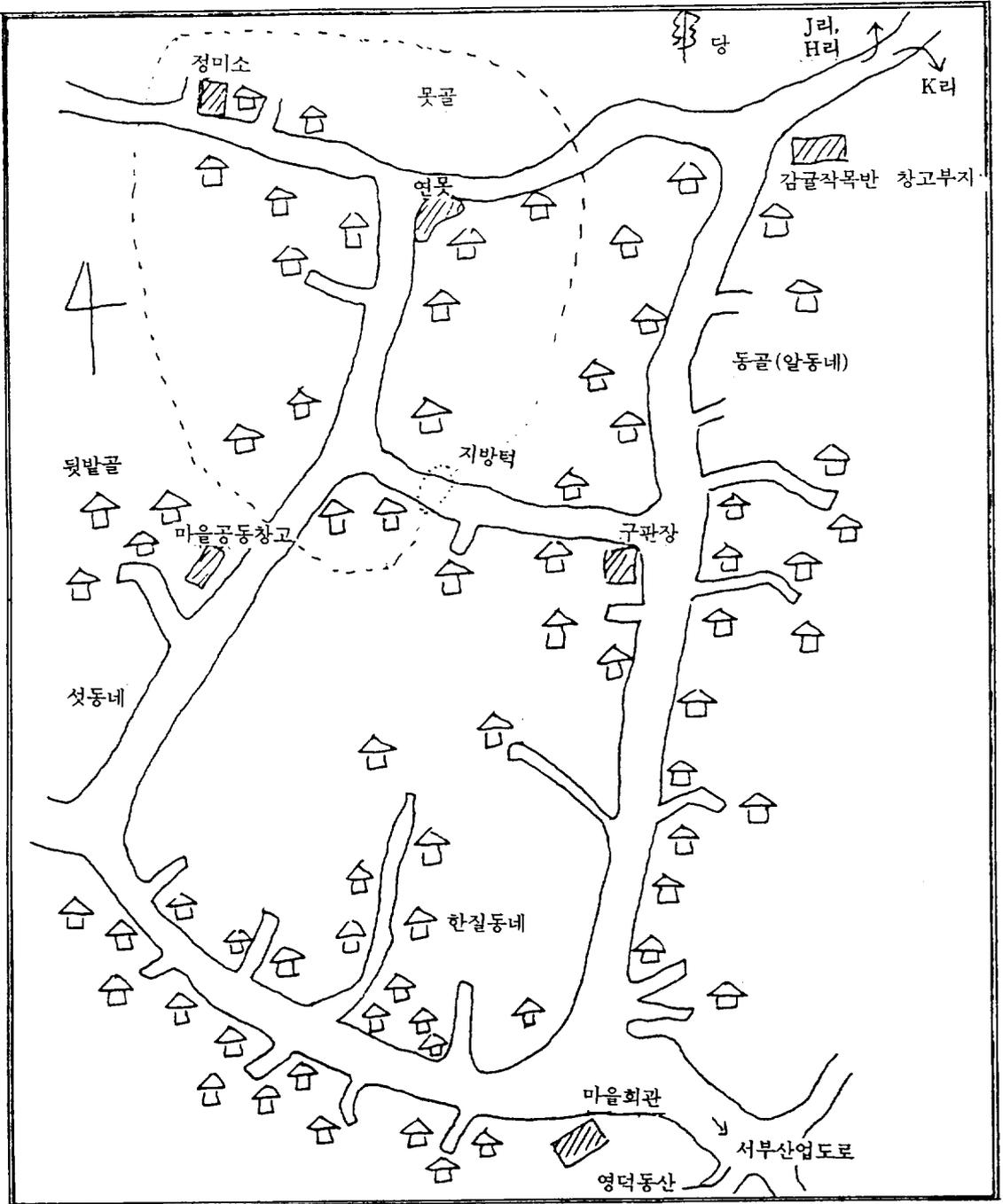
4.3사건은 S리의 마을사에도 커다란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감귤과 밭작물 뿐만 아니라 축산에서도 소득을 얻고 있다. 주로 소를 키우는데 마을 남쪽에 있는 약 35정보에 이르는 공동목장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방목을 한다. 원래 이 마을에는 공동목장지가 세 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됐으나 그 중 두 구역은 마을일을 하면서 매각해버리고 한 구역만 남아 있다. 그래서 마을 외부에는 현재의 공동목장조직이 S리공동목장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내부에서는 목장계라 호칭하기도 하고 주민 전체가 아닌 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S리는 축산과 감귤, 밭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전형적인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3사건의 피해를 크게 입은 것 역시 그러하다. 또 현재의 한국 농촌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촌과 이농의 경험도 이 마을 주민의 생활상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 9) 주민들이 제보한 사례중 몇을 들어본다. 사례 1: “과거에 고평○이라고 지금의 면장직엔가 있었다. 그는 당시 이 마을 최고 권세가였는데 그의 장남 고○흥씨가 4.3때 산사람에게 끌려가서 사망한 후 대가 끊겼다”. 사례 2: “현재 비어있는 집인 이 집은 원래 고성○씨가 살던 곳이다. 그는 4.3때 제주시로 이주해 살다가 이십여년전에 사망했고 자녀들도 다 이곳을 떠나 살고 있다. 그가 이주한 후 백○호씨가 대지를 매수해서 집을 새로 짓고 살다가 이십칠팔년전에 사망하고 그의 처 고○행씨가 삼남매를 거느리고 살다가 제주시로 이주한 후 빈집이 되었다”. 사례 3: “4.3 당시 이장이었던 양○선씨는 경찰측에 사상을 의심받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육이오사변 때 복귀군이 남침하여 형무소 문을 연후 소식을 모른다”.

〈그림 1〉 조사대상 마을의 약도



IV. 계결사체의 유형과 운영방식

연구자는 계결사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 적이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의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분석적으로 나누자면 표출적(expressive)인 것과 도구적(instrumental)인 것 두가지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고, 후자는 다시 영리적(lucrative) 계와 공리적(commonweal) 계로 세분할 수 있다. 표출적인 계에는 자기 표현과 인간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개의 친목계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속하고, 돈계나 쌀계와 같은 영리적 계와 상호부조를 위한 혼상갑계 또는 산업관련계, 동계 등의 공리적 계는 모두 도구적인 것들이다(김석준 1988 : 118)”.

하지만 현실속의 계는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 표출적인 측면과 도구적인 측면을 겸비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원래는 도구적인 목적을 위해 결성된 계가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서는 표출적인 것으로 전환되거나 그 역의 경우도 있다. 이런 사실은 위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만든다. 이는 위의 분류가 다분히 이념형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통시적(diachronic)인 분석보다는 공시적(synchronic) 비교를 위해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의 분류도식을 우리의 연구 대상에 적용하자면 그러한 제안배경과 한계를 먼저 수용·이해하고 그 맥락안에서만 작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S리의 계결사체들은 비교적 다양하다. 조사된 계결사체의 대표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능수행의 정도만을 드러내는 수준에서 유형화한 후 몇몇 사례를 대상으로 운영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된 계결사체중에는 명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언급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특히 수집된 계문서에¹⁰⁾ 나타난 활동과정을 판독하고 계원들이 자신들의 계활동에 실제로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분류·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계결사체는 우리가 분류기준으로 삼는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고,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의 형태나 명칭은 주로 육지부의 계를 준거로 하고 있는 한편 제주도 농촌에는 그와 대조해볼만한 특유의 계의 형태와 명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도 분류에 앞서 S리의 계결사체들의 명칭부터 이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결사체의 유형화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무리없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갖추어야할 순서라고 본다.

10) S리에서는 계의 명칭과 계원명부 그리고 계규약 등을 정리한 문서를 契座目이라 부른다.

1. 계결사체의 명칭과 유형

글머리에 밝힌 대로 제주도의 다른 농촌과 같이 이 마을 주민들도 계결사체를 부를 때 '계', '계', '집', '술'라는 용어들을 혼용한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계원끼리는 물론 계원이거나 그렇지 않은 주민간의 일상 대화속에서도 두드러지지만 계문서 곧 계약목에서는 거의 '계' 또는 '회'만이 사용된다. 수집된 계약목중 마을 아주머니 7명이 하는 '칠인계'는 죄목의 내용중에 자신들의 계를 '쓰레트계'라고 명기한 단 하나의 예외이다. 이처럼 일상적 대화에서와는 달리 죄목에는 보다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계운영의 공식화(formal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추리를 더한다면, 이런 공식화에는 특정 계의 구성원간에만 공식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곧, 契內와 契外의 경계구분에 대한 강조가 은연중에 깔려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¹¹⁾

또한 주민들은 마을내의 계를 그릇계(계), 천막계(계), 花丹계(계), 가마계(계), 烙印계(계), 목장계(조합), 좁쌀계(계), 나락계(계), 쌀계(계), 돈계(계), 산담집(계), 친목계(계 또는 회) 등으로 부른다.¹²⁾ 이는 각 계의 기능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보통명사화된 명칭으로 계를 지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의 계가 여럿일 경우에는 특정의 기준을 가지고 계를 구별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계를 구성하게된 동기나 배경, 또는 특정 계 스스로 붙인 契名이 기준이되기도 하고, 계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 지명이나 문중의 성씨, 경조사 때 상호부조하는 양극의 量이나 계원의 수가 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예컨대 '쓰레트계'로 통하는 앞서 소개한 아주머니 7인의 '칠인계'가 계 결성의 배경이 명칭화한 예이고, 계 자체의 계명이 명칭이 된 예는 '新成協同契'라 불리는 산담집이라 할 수 있다.¹³⁾ '쓰레트계'는 초가지붕을 쓰레트로 개량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나서 남은 돈을 자본금으로

- 11) 계내와 계외의 경계구분은 연구자가 죄목을 포함한 계문서를 수집하는 과정의 대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다. 계문서를 좀 볼 수 있겠느냐는 연구자의 요청에 가장 의례적인 반응은 "뭐 이런 걸 보시려고 하느냐, 잘 몰라서 제대로 기록한 것도 없고 그냥 부끄럽기만 한데"였다. 그러나 이런 의례적인 응답과는 달리 "이거 계원들에게 물어보고나서야 하지 계 마음대로 하기가 좀 그렇다"는 공개를 꺼리는 반응에서는 그러한 외부인에 대한 경계구분의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서 계 자체가 계원들만을 '우리'로 하는 일종의 비밀스런 영역 또는 결사인 것처럼 인식됨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정보제공자였던 양○만씨(53세)의 "거 죄목은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맡은 잘 해보겠지만"이라는 도움말에도 그런 인식의 일단은 내비친다.
- 12) 열거된 계결사체 가운데는 몇 가지 해석이 더 요구되는 것들도 있다. 그것들은 제주도 농촌의 생활양식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계결사체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시하면, 화단계, 낙인계, 좁쌀계, 나락계, 쌀계, 목장계와 산담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면서 요구될 때마다 설명을 가하려고 한다.
- 13) 그러나 '신성협동계'보다는 산담집이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는 이 계가 마을내에 하나밖에 없는 산담집이어서 식별을 위한 다른 고유명칭이 구태어 불필요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곧 이어 재론하겠지만 산담집은 제주도 특유의 묘지제도와 관련된 계결사체의 하나로서 육지부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것이다.

삼아 그 공동사업에 참가했던 부인네들이 成契를 한 배경 때문에, 그리고 산담점은 계좌목에 '신성협동계'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칭해지는 것이다.

또 지명이 계명에 등장하는 사례는 목장계에서¹⁴⁾, 성씨의 경우는 문중계에서 볼 수 있다. 앞의 3장에서 언급했지만, 이 마을의 목장계는 원래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즉, 각 목장계는 마을내의 동네별로 구성되어 마을의 공동목장지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목장계가 각각이 담당하는 목장지의 명칭에 따라 '소동이동산계(쇠집)', '개여목계(쇠집)', '맹단이계(쇠집)'로 불리웠다는 것이다. 문중계의 예는 'S리양씨문중친목계'를 들 수 있는데, 원래 좌목상의 공식적 명칭은 '제주양씨○○파S리문중회'라고 되어 있다. 이 계는 이 마을 출신의 문중성원으로만 계를 구성한 S리의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곡의 양으로 구분되는 계는 좁쌀계, 나락계, 쌀계 등으로서 계원 한 사람이 얼마 정도를 願助¹⁵⁾ 하느냐에 따라 한말계, 닷되계 등으로 부른다. 이중 좁쌀계와 나락계는 이미 없어졌지만, 쌀계의 경우 닷되계는 보통 20명 정도를 계원으로 해서 구성되는데 한 사람이 닷되(大升二斗)씩 모이면 고조의 양이 한 가마가 된다. 계원 수에 따른 명칭은 친목회 또는 친목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7인친목(회, 계)', '5인친목(회, 계)' 등이 그 예이다.

요컨대 이 마을주민들은 계를 식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보통명사화한 명칭을 사용하고, 더 분명한 구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고유명사화시켜 각각을 분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위와 같은 명칭으로 분별되는 이 마을의 계들은 우리의 분류도식에 의하면 어떻게 유형화될 것인지를 거론해 보기로 하자.

우선 공리적 기능의 계결사체에는 그릇계, 천막계, 화단계, 가마계, 목장계, 낙인계, 산담점 등과 쌀계가 포함된다. 이 계들은, ① 계원과 마을 주민들의 대소사와 산업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설비를 마련하거나, ② 비용을 상호부조하기 위해서, 또는 ③ 집합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일을 치루기 위해 결성됐다. 계의 실제적인 목적과 활동이 많은 부분 중첩되기는 하지만 얼마간 단순화시켜 열거된 계결사체들을 세분한다면, ①의 목적은 그릇계, 천막계, 가마계가, 그리고 ①과 ③을 위해서 목장계, 낙인계, 화단계와 산담점이, 쌀계는 ②와③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할

14) 목장계를 '쇠집'이라고도 한다. 이는 목장이 주로 소를 방목하기 위해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쇠집보다는 목장조합이나 목장계라는 명칭이 주로 통용된다. 연구자가 쇠집도 있느냐고 주민에게 질문하자 "아 목장조합 말이요? 요새는 목장조합이라든가 목장계라고 부르지요"라고 응답했다.

15) 주민들은 願助와 扶助를 구분한다. 전자는 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지만 후자는 개인적인 것으로 성의껏 하는 것이라 한다. 가령 어떤 쌀계에서 고조를 백미 한 가마로 규정한다면 계원들이 경조사 때 한 번씩 백미 한 가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받았을 경우 또 경조사가 생기더라도 계원 모두가 한번씩 고조받기 전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조는 경조사 때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래서 순전히 상호부조 곧 고조만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공리적 계결사체는 고조가 일회전되고 나면 해체되는 수가 많다. 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고조와 부조를 구분짓는 것은 계결사체의 변화를 살필 때 중요하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릇제는 “부너자들이 자기 집에 일이 났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으로 “15명이 계원인데 각종 식기와 보온병, 가스솥, 교자상 같은 것을 장만해서” 계원에게는 무료로, 비계원에게는 2만원에 빌려준다는 점에서 주로 ①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천막제는 천막과 야외용인 큰 나무탁자를 구비해서 계원과 주민에게 대여한다. 그리고 가마제는 육지부의 冠帶契와 유사한 것으로 전통 혼례식에 사용하는 가마와 관복 등을 갖추고 계내와 계외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①과 ③을 위한 목장제는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초지를 공동소유하고 이를 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축산업을 돕는다. 이런 배경에서 목장에 방목하는 소에 이 마을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기 위한 도구를 구비하고 집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낙인제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목장제의 계원중 일부가 낙인제를 만들게 됐다. 화단제는 제주도의 喪輿契이다.¹⁶⁾ 이 계에서는 화단 끝 상여를 마련해 있고 마을의 장례 때 계원들이 화단을 운반한다. 산담점은 제주도 특유의 묘제와 관계가 있다. 이 계의 계원들은 도구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묘지 주변에 산담(묘역 경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돌담)을 협동해서 쌓는 일 외에도 밭의 돌담, 가옥의 돌담을 쌓는 일도 한다.¹⁷⁾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쌀제는 보통 10명이나 20명을 계원으로 해서 成契된다. 이렇게 해서 한 계원이 쌀을 한말이나 닛되씩 모아 쌀 한가마를 계원의 관혼상제 때 고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는 계원들이 가서 여러가지 일을 나누어 해주기 때문에 ②와 ③이 쌀제의 주 목적이자 기능이 된다. 이는 육지부의 婚喪甲契에서의 상호부조와 대동소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영리적 계결사체로는 돈제를, 표출적인 것으로는 친목계 또는 친목회를 들 수 있다. 돈제는 몫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거의 충실한 사금융적인 계로 주민들 중에도 다수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공개하기를 극히 꺼렸다.¹⁹⁾ 친목계(회)는 명칭처럼 친목도모를 중시한다. 그런데 “쌀제는 이제 하기 힘들다. 사람 수가 10명, 20명 되기도 그렇고 그래서

16) 4.3 이전에 이 마을에는 화단제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이 둘은 ‘큰화단제’, ‘작은 화단제’로 구분됐는데, 전자는 4.3을 견디지 못해 없어지고 후자가 현재의 화단제로 이어졌다고 한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지만 ‘작은 화단제’도 4.3의 유린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17) 이러한 일에 계원 모두가 나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出役이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出役記라 한다.

18) 이런 점에서 쌀제의 표준어가 쌀계이지만 이 마을의 쌀제와 육지부의 쌀제는 동일하지 않다. 육지부의 농촌에서 쌀제는 나라계, 돈제와 함께 주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며 영리적 계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 인용한 본 연구자의 계결사체 분류도식에서 영리적 계로 포함·언급된 쌀제는 육지부의 경우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이 마을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나라계(나라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육지부의 쌀제와 나라계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보고는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을 사례연구한 최재석(1987: 120-121)을 참조할 것.

19)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돈제에 대한 더 진전된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가 부담해야 할 한계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친목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친목으로 하면 대부분 임시 임시 큰일 있을 때나 고조하고 일 도와주고 하면 된다. 친목회는 일시적인 것이다”는 주민의 말은 이 친목회가 단순한 친목만이 아니라 쌀제의 상호부조의 기능을 대체하는 계로도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중 하나가 사람을 모으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데서 이러한 선호가 이촌의 영향임도 추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뒤의 논의에서 더 깊이 다루어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겠다.

2. 계결사체의 운영방식과 변화

앞 절의 논의를 토대로 여기서는 이 마을 계결사체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검토는 첫째 계결사체들의 형성이 어떤 배경의 주민들로 구성됐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둘째는 계결사체에서의 직책과 직무수행의 방법, 그리고 계결사체의 재산형성과 그 종류를 다루며, 셋째로는 상호부조의 관행과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촌사회의 변동과 계결사체를 통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여기에 어떻게 어울려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이는 주로 수집된 계좌목록과 주민들과의 담화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1) 계결사체의 형성과 계원 구성의 변화

이 마을에 현존하는 계결사체중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랜 것으로는 가마제, 화단체, 목장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成契한 연도가 분명한 것은 가마제 뿐이고 나머지 둘은 정확치 않다. 가마제는 좌목에 1901년 주민 7명이 모여 성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화단체와 목장계는 원좌목이 일부 훼손되어 남아있는 내용만으로 오래됐음을 추정해야 했다.²⁰⁾ 화단체의 좌목에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昭和十九年舊二月日契中改座日’으로만 되어 있다. 즉, 1944년 음력 2월에 계의 좌목을 개정했다는 기록만이 있는 것이다. ‘改座日’이란 계원의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보면 이 화단체가 그 이전에 결성됐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목장계의 경우도 소화13년(서기 1938년)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결성된 계결사체를 제외하고는 성립당시의 계원 모두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원은 계속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 마련이다.

20) 이 중 가마제와 화단체의 좌목은 매우 온전하게 보관·승계된 편이다. 4.3사건 때 다른 계의 좌목들은 소실 또는 분실되어버렸지만 두 계의 것은 계원중의 한 사람이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두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양자중 화단체보다는 가마제의 것이 더 잘 보존되어 있다. 목장계의 좌목은 직접 입수해서 분석하지 못하고 주민(목장계의 財務)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잠깐동안 열람했을 뿐이다. “계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 소집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목장계의 계원은 이촌한 상당 수를 포함 64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분석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개좌목이 만들어지는데, 계원의 유고시에 대신 입계하는 사람은 代參者라 하고 전혀 새로 입계하는 이는 新參者라 한다. 대참은 계원자격의 상속을 뜻하며 원칙상 계원의 직계후손에게 주어지나 여의치 않을 때에 한해 드물게는 가까운 친족이 상속하는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대참은 별도의 입계조건이 필요치 않지만 신참은 계에 따라서 계자금에 대한 일정 액의 분담금을 내든가, 고조의 수혜를 제한받든가 등의 조건과 제약을 받기도 한다.²¹⁾

그러면 각 계결사체들의 계원 구성과 그 변화과정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가마제의 1901년도 최초 계원의 성씨 구성은 梁씨와 白씨가 각각 2명, 任씨, 高씨, 金씨가 각 1명으로 이 마을의 주요 성씨중 夫씨를 제외한 주요 성씨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그 후 해마다 2명씩 신입계원(백씨 1명과 고씨 3명)을 받아들여 계원 수가 1903년에 11명이 된다. 1903년 이래의 계원 수의 변동은 1931년에 12명으로(김씨 1명 入契) 증가했다가 다시 1937년에 임씨 1명이 脫契해 11명이 되고, 1943년에 와서 그전에는 없던 성씨인 朴씨가 1명 입계해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계원들의 성씨 구성은 1964년에 고씨 1명이 탈계해 11명으로 감소한 후 아직껏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마제의 계원구성과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좌목상의 기록만으로는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애초부터 지금까지 부씨는 입계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가마제의 기능이 마을 주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인 데도 계원 구성이 마을내의 주요 성씨를 모두 포괄하지 않고 특정 성씨를 배제했다는 것으로 어쨌든 주목해들만 하다.²²⁾ 또 한 가지 새겨두어야 할 사항은 좌목상으로는 11명이지만 이 가운데 재촌자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마제의 운영과 유지에 이촌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

가마제에 비할 때 화단체는 좌목상으로도 이 마을에 대한 4.3의 피해가 어떤지를 뚜렷이 가늠할 수 있게 한다. 1944년 당시 화단체 계원은 23명으로, 양씨 6명, 박씨와 고씨 각 5명, 김씨 3명, 秦씨 2명, 백씨와 임씨 각 1명으로 성씨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4.3 이후인 1952년의 개좌목에는 양씨 5명, 고씨 4명으로 각 1명씩 줄고, 박씨는 2명이 감소해 3명, 3명이었던 김씨는 한 사람도 없고, 나머지 성씨만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원 수는 16명으로 감소한다.²³⁾ 이 중 1944년 당시에도 계원이었던 사람은 11명 뿐이고, 대참된 계원은 5명, 좌목에서 사라진 이가 12명이나 된다.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4.3 때 사망하거나 타지로 갔다가 미귀환한 자들이 다수여서 이렇듯 계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21) 낙인제에서의 1985년의 예를 들어 본다. 신참자는 고조시에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고조에서 제외시키고, 신입비는 계자금을 계원 수만큼 15등분한 삼천백육십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참자는 고조시에 糶米를 내지 않으나, 그외의 일에 있어서는 "가입이후로 다른 계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22) 가마제를 성계할 당시 계원인 임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 부씨보다도 나중이었다는 자료를 상기해 볼 것. 앞의 주8) 참조

23) 좌목상의 기록도. 1944년과 1946년의 것 이후에 1952년으로 뛰어 넘고 있다.

이후 화단체의 계원 수는 1963년에 고씨 1명이 신규로 가입해 17명이 됐다가 1965년에 다시 두명이 탈계해 15명으로 된 후 현재는 양씨와 박씨 각 4명, 고씨 3명, 백씨와 진씨 각 1명, 임씨 2명으로 총 15명으로 되어 있다. 가마제와 동일하게 이 계에도 부씨가 한 명도 없음을 다시 눈길을 끈다. 그러나 다행히 화단체의 계원중 이촌자는 단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이 재촌해 있어서 가마제에 비해 이촌의 영향을 그리 크게 받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사회적 연결망의 중층화와 관련해 앞의 가마제의 계원이 이 화단체의 계원인 경우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면, 그런 계원이 1944년에(가마제는 1943년의 개좌목)는 2명이고 그후는 수차례에 걸친 비슷한 시기의 두 계의 개좌목을 비교해도 그런 사례가 없다가 최근의 1983년(가마제는 1985년)에 이르러 1명이 접친다. 이는 두 계의 계원간에 중층적인 관계가 매우 미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두 계가 주 활동영역(흔례와 장례)은 다르지만 둘 다 마을의 전주민의 생활양식에 필수적인 활동이고, 또 역사도 오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함축된 바는, 우리의 관심사와 연결지를 때, 쉬 간과해선 안되리라 본다.

다음은 비교적 근래에 결성된 산담점인 '신성협동계'와 낙인재, '7인친목회'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먼저 산담점은 1966년 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산담점을 성계할 때의 계원의 성씨구성은 고씨 3명, 임씨, 이씨, 김씨, 부씨 각 2명, 양씨와 박씨 각 1명으로 13명이었다. 그러다 1972년에 임씨 1명이 탈계하고 고씨 1명이 입제한 후 1978년에 다시 임씨 1명이 입계해서 14명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산담점은 계원들 중에 못골에 거주하는 이는 양씨 1명 뿐이고 나머지 전계원이 마을의 다른 동네 거주자들임이 특이하다. 앞의 3장의 마을 개관에서 못골은 이 마을의 양씨들이 주로 거주하며, 못골이외의 동네에는 양씨가 1 가구뿐임을 보았다. 만일 이를 마을 구역 또는 동네와 마을내 문중 구성원들의 분포가 중첩된 현상이라 본다면, 산담점의 계원구성은 그런 분포가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 점 앞으로의 논의에서 유념해보도록 하자.

산담점의 계원이면서 앞의 두 계에도 속한 사람은, 1966년의 산담점 좌목에서는 1965년도에 화단체의 계원인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나고, 1972년의 산담점에서는 화단체의 1969년도 계원이 3명, 산담점 1985년에는 화단체의 1983년의 계원이 여전히 3명이다. 하지만 가마제와는 비슷한 시기의 계원 명부상에 동일 계원이 없다가 최근인 1985년에 와서야 1명이 나온다. 이는 산담점과 화단체간에는 약간의 중층화가 있지만 가마제와는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산담점의 현계원 중 대부분은 재촌해 있고 3명만이 이촌해 있음도 확인된다.

산담점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은 낙인재로 가면 더 두드러진다. 낙인재는 1966년에 15명의 주민에 의해 성계됐다. 이 계의 구성원은 모두 이 마을의 목장계(조합)의 계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계원의 구성을 보면, 1966년 당시 임씨 4명, 박, 김, 백, 부, 고씨 각 2명, 이씨 1명으로

15명이었다. 그후 1985년에 와서 고씨가 1명 더 가입해 16명이 됐지만 여기에는 양씨가 한명도 가입해 있지 않다. 이는 산담점보다도 더 양씨 문중이 배제된 경우이다. 그리고 낙인제는 좌목에 계원의 명단이 1966년과 1985년에 두번 나오는데, 다른 계와 접친 계원 수는 성제 당시의 1966년에 같은 해의 산담점과 8명, 비슷한 시기의 화단체(1965년)와는 4명이고 가마제(1964년)와는 없다. 1985년에 와서는 산담점(1985년)과 8명, 화단체(1983년)와 2명, 가마제(1985년)와 1명이 접친다. 이런 사실은 산담점과 낙인제간은 계원의 중층화가 높으며, 가마제와는 산담점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층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은 모두 공리적 계결사체의 계원 구성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이다. 종합과 비교를 위해 표출적 계인 '7인친목회'의 경우는 어떠한지 들여다보자.²⁴⁾ 1963년에 구성된 이 친목회 계원들은 모두 재촌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성씨구성은 박, 김씨 각 2명, 임, 부, 고씨 각 1명으로 총 7명이다. 이들은 1명만을 제외하고 못골 이외의 지역에 살며, 못골에 사는 사람도 양씨가 아니라 박씨이다. 낙인제처럼 전적으로 양씨가 아닌 주민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다른 계와의 중층화 정도는 낙인제(1966년)와 5명, 산담제(1966년)와 4명, 화단체(1963년과 1977년)와는 3명, 가마제(1975년)와는 1명이다. 즉, 낙인제, 산담제, 화단체와는 중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가마제와는 중층화가 미약하다.

그런데 이런 중층화의 정도를 이 친목회 계원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가입해있는 계결사체의 수를 가지고 점검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위에 사례분석한 5개의 계결사체에 한정한 것이지만, 계원 7명중, 4명은 3개의 계에, 1명은 1개에만, 또 다른 1명은 2개의 계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현재 모든 계(5개)에 입계해있다. 다른 이들보다 이 5개의 계에 다 속해있는 사람의 배경이 궁금해짐은 당연하겠다.

그의 배경은 이렇다. 이름은 박○식으로 현재 63세인데 슬하에 4남1녀를 두었으나 결혼후 모두 이촌해서 산다. 그는 과거에 이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서 박이장이라고 호칭된다. 마을내의 여러 곳에 그가 소유한 과수원과 밭이 있고, 그의 동생중 하나는 제주시 근교에서 큰 목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조부는 이 마을의 대단한 유지중의 하나였다. 마을회관 앞의 정자나무와 그 집 뒤의 큰 나무도 다 그의 조부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유지였던 조부의 뒤를 따라 가마제와 화단체, 목장계에 대참·입계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조부 때의 일이 그를 통해 기억되고, 이제는 거의 이촌해버려 마을내에 3가구 뿐인 박씨집안의 연장자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이 마을 박씨문중의 대표자적인 위치에 있게끔 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못골이 아닌 곳에 살고 있기도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이 목장계를 모체로한 낙인제와,

24) 이 '7인친목회'는 운영방식이나 조직의 형태가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다른 계결사체들과 비교해볼만 하다. 이에 대한 것은 뒤로 가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비뭇골 거주자들의 친목회, 그리고 산담점에 그가 입계하게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개인이 마을내에서 차지하는 또는 인정받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결사체에의 가입과 참여의 수준에 직결된다는 하나의 예증으로 간주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 관계 역시 우리의 관심영역에 포섭됨은 덧붙일 필요가 없겠다.

이상을 마무리지으면서 우리는 계원구성과 그 변화에 있어서 사례분석된 계결사체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이어질 분석을 위해 정리해두자면, 첫째, 화단계에서 보았듯이 4.3은 이 마을의 계결사체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했음이 틀림없고, 둘째로 계결사체에 따라서는 이촌이 끼친 영향은 다르지만 가마계의 경우 재촌자가 극소수여서 그 운영과 앞으로의 유지는 지금 그리 낙관적일 수 없다. 그리고 셋째로, 역사가 오랜 계결사체에서는 물론 최근에 결성된 계결사체에서도 마을내의 특정 성씨를 배제시킨 사례가 적지 않으며, 계결사체에 특정인이 가입하는 데는 개인적 수준에서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종의 배경이자 조건으로 작용함이 부분적이지만 드러난다. 그런즉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련시킬 때 이러한 경향들은 아래의 항목들에서 더욱 긴밀히 따져져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계결사체내의 직책과 재산

소수를 예외로 하고는 이 마을의 계결사체들은 대부분 契長, 公員, 所任의 직책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계장은 계원중 최연장자의 몫이고, 공원은 그 다음 연장자가 맡아 계의 일을 좌목에 기록할 때 서명을 함으로써 일종의 監事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소임은 좌목을 포함한 계의 관련문서들을 기록·보관하고 계원간의 연락과 契資金의 관리를 맡아하며,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1년 또는 2년씩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직책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인 사례의 하나는 '7인친목회'이다. 여기서는 계장과 회장이라는 직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공원이란 직책도 없으며 소임 대신 그 역할을 하는 財務단이 있다. 그래도 재무의 임기는 다른 계와 마찬가지로 계원들이 1-2년씩 윤번제로 담당하며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소임 또는 재무직의 윤번제 담당과 직책의 분담이 정상적으로 지켜지는지의 여부가 된다. 그것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계결사체들의 운영방식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결한 분석을 위해 이에 대한 결론부터 미리 이끌어 내자면, 재촌자가 많은 계열수록 그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만 이촌자가 많을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된다. 앞에서의 계원구성의 변화를 기억한다면 이런 명제에서는 후자의 예로 가마제를, 그리고 전자에는 나머지 계들을 소속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분석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거니와 일단 가마제

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토론해보기로 한다.

가마제에서 계원간의 직책분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특히 1-2년마다 운번제로 계원중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소임직은 1975년에 그 직을 맡은 한 계원이 1981년까지 6년 정도를 계속해서 그대로 소임인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가 1987년부터는 계원 한 사람이 공원과 소임을 겸직하는 사태가 목격된다. "말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나가버리고 사람이 없다"라는 한 계원의 설명이 그렇듯이 이는 이촌의 영향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70년대 후반부터 초래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마을에서의 이촌이 이 때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게 된다.²⁵⁾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가마제가 지속되는 이유 곧, 계원들이 계를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아연 궁금해진다. 과거에는 계원들이 집단적으로 품을 팔아 계자금을 축적하여 계에 필요한 일이나 재산증식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촌해버린 계원들이 많은 지금은 그런 활동도 할 수 없고, 가마제를 구성하게된 혼례용품의 공동이용이라는 공리적 목적도 전통적 혼례식이 사라진 터에 그 목적만으로는 더 이상 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데서 그런 의문은 더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비교적 분명한 것 같았다. 즉, 계에서 1916년에 매입해 현재도 계자금의 증식원이되고 있는 토지가 있고²⁶⁾ 아직 계원들 모두에 대한 고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원의 이촌여부에 상관없이 계자금의 증식이 가능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촌 여부에 상관없이 계원들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공평하게 수혜받아야할 고조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그런 방식으로 계자금이 증식될 수 있는 한 고조는 물론 계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는 원래의 공리적 목적이 상황의 변화로 더 이상 유명무실해지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토지라는 계재산과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계원에 대한 고조가 이제는 목적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이촌과

- 25) 이런 추측은 '會議時 參席치 아니한 者는 煙草配給을 中止함'이라는 벌칙이 규정되어 가마제의 좌목에 처음 기재된 것이 1979년이라는 데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 벌칙은 강도가 약한 것 같지만 재촌계원보다는 이촌한 계원들의 불참율이 높은 데 대한 상징적 제재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 26) 계원들의 출자와 단체로 품을 팔아 받은 돈, 혼례용품의 대여금을 모아 구입한 이 토지에서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제법 많아 최근에는 일부를 판매해서 계자금을 증식시켜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좌목중에는 때때로 계자금의 일부를 계원들이 일정액씩 배분받은 기록도 나온다. 이외에도 가마제의 재산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예시하자면, '冠服壹件 釜壹件 釜擔壹件 缸壹介'란 재산목록이 1930년도의 좌목에 올라 있다. 그러나 오래전에 전통적인 혼례식이 사라지면서 그런 물품들은 빌려쓰질 않아 지금은 그 목록도 정확치 않고, 현재의 소임은 보관상태가 어떤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혼인제도의 변화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공리적 계결사체에서 야기된 공리성의 상실이며 일종의 목적-수단 전치(means and goals displacement) 현상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마제의 상태는 그와 유사한 공리적 계결사체인 화단체와 명확히 대조적이다. 가마제와 동일하게 화단체의 직책에도 계장, 공원, 소임이 있다. 그러나 가마제에서와는 달리 최근까지도 소임직을 계원들끼리 2년씩 운번제로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단체의 계원 15인 중 이촌자가 단지 2명 뿐인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즉 같은 공리적 계임에도 가마제와는 다르게 이촌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화단체는 계재산이 단지 화단과 이를 보관할 움막, 그리고 화단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밖에 없음에도 충분히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장례를 위해 화단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 계를 존속시킬 중요한 요인이 됨은 물론이다.

가마제와 화단체의 이와 같은 대비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하나는 공리적 계결사체의 목적의 유지와 계결사체 자체의 존속에 이촌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변화가 강요될 때 계결사체의 존속과 계원들의 결집을 위해 소극적이지만 유용한 방안으로 토지와 같은 재산의 획득이 추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마을의 계결사체 중에는 계원들의 공동 출자나 공동 노동에 의한 수입 등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제법 있었다. 한 예로 '7인친목회'를 들 수 있다. 이 계에서는 1963년 성계할 당시 일인당 백원씩 모아 계자금으로 삼았는데, 그 위에 계원들이 집단적으로 품을 팔아 얻은 수입을 덧붙이면서 식리를 하여 증식시켰다. 그러다 늘어난 자금으로 1965년에 600평 가량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후는 이를 공동경작해서 수확물을 처분해 이 또한 계의 자금으로 축적한다. 때에 따라서는 계원중 1인에게 일년동안 이 밭을 경작토록하고 그 수확중 일부를 계에 내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의 자금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축적을 하지 않고 일부를 계원들의 의복이나 구두를 공동 구입해 분배하면서 친목도모라는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7인친목회'에서는 계재산인 토지가 계의 목적달성에 매우 쓸모있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계결사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튼튼한 기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여기에 이 '7인친목회'는 계원 모두가 현재 재촌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계의 형성도 가마제와 화단체와는 달리 1960년대 초인 비교적 근래의 것이라는 점을 다음의 분석을 위해 강조해두어야겠다.

27) 화단체의 좌목에는 고조기가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분석은 보류할 수 밖에 없다.

3) 계결사체에서의 상호부조

이 마을의 계결사체에서 상호부조의 일반적 형태는 현물 또는 현금에 의한 고조와 부조, 그리고 계원들의 집단적 노동력 부조의 세 가지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형태와 그 변화 역시 앞에서부터 우리가 추적해온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담아내고 있다. 앞의 분석과정에서 대략 시사되었듯이 그러한 해답은 구태어 여러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가마제와 '7인친목회'만을 가지고도 윤곽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가마제를 보자. 좌목을 보면 1901년 계를 구성할 당시에 고조를 '白米五升燒木一發'씩 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고조를 하느냐를 약정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조기의 내용을 보면, 1950년대 이전까지는 계원의 父母喪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백미와 소목(장작) 이외에 '白紙一卷草席一葉燭一封'도 같이 고조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후의 1950년대 후반부터는 계원의 결혼, 계원의 가옥신축등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 고조를 한다. 고조의 양도 뒤로 갈수록 증가해 1956년에 이르러서는 '白米舊六斗二升火木十枝'씩 하기로 재결의되고, 가장 최근인 1986년에 와서는 계원 모친상 때 '白米(大升)四斗火木(百)枝上'이란 기록이 보인다. 고조의 양과 범위가 점차 많아지고 넓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조의 범위 확대와 양의 증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고조할 때 未收한 계원에 관한 기록이 1950년대 이전에는 간혹 보이다가 50년대 후반부터는 꾸준히 나온다는 사실이다. 계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주로 계원이 이촌한 탓으로서, 그럴 경우 연락이 쉽지 않은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다름아니라 가마제에 대한 이촌의 영향이 이 시기부터 시작됐음을 알리는 징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다면, 그리고 가마제에서의 직책과 직무분담에 대한 앞서의 분석결과를 이에 결합시킨다면 가마제에 대한 이촌의 영향은 1950년대 후반이후 차츰 증대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가속화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마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발생한 변화인지 아니면 이 마을 전반적으로 경험한 변화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7인친목회'의 결성배경과 상호부조의 특징을 제시해보기로 하자. 재론하지만 이 친목회는 쌀제의 대안으로 결성됐다. 인용했던 "쌀제는 이제 하기 힘들다. 사람 수를 10명 20명씩 묶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친목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민의 담화는 그런 배경을 해명해준다. 이는 곧 이촌에 대한 반작용과 적응양식의 하나로 '친목회'라는 다소 색다른 계결사체가 선택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963년에 결성된 이 '7인친목회'의 계원이 "우리 친목회는 이 마을에서 빨리 결성된 편"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마을에 그러한 이촌의 영향이 지금처럼 심각하기 이전이거나 그럴 즈음에 이 친목회가 구성됐음을 일단 시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만으로도 가마제에서 드러난 이촌의 진행과

정이 가마제의 특수사례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과정임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이 친목회가 색다르다는 것을 좀 더 음미해 봐야 한다. 이는 바로 위에 인용한 담화로부터 볼 때 변동하는 농촌사회의 모습이 이 '7인친목회'에 축약된 듯하고, 이런 해석이 가당하다면 계결사체의 변화상과 그 방향을 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일정하게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계원 구성에서 보면 다른 계는 예외없이 10명 이상을 계원으로 하고 있지만 "친목회는 5인친목, 7인 친목" 등이 있거니와 이 '7인친목회'는 7명만을 계원으로 한다. 계의 목적도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이 가장 일차적이고 그런데서 "團體的 事業에 熱中하여 基金收集을" 하되, "喪婚官災시에 願助키로" 하고 있다. 게다가 임원도 계장 또는 회장과 재무가 있을 뿐이다.

또한 고조는 계원 경조사 때 백미 한 가마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계와 달리 한번 고조를 받으면 다른 계원이 다 고조를 받은 후에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고 있는 것으로 좌목상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의 범위도 넓어 부모와 조부모상은 물론, 자제의 결혼, 심지어 계원 삼촌의 大祥 때도 고조가 이루어 진다. 이에 더하여 규정과는 달리 경조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고조의 양도 다르다. 1973년 이전에는 계원 부모상과 묘를 이장할 때 백미 한가마이지만, 조모상과 삼촌 대상 때는 '燒酒一桶'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1985년 이후의 계원 자제의 결혼식에서는 백미 한가마와 소주 두 통의 액수만큼 현금으로 고조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계원은, 이러한 것이 좌목상에는 모두 다 고조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 친목회에서는) 한 사람이 고조로 백미 한가마를 받으면, 다른 경조사때는 받질 못한다. 그런 때에는 남자들이 술 두상자 하다가 요즘은 세 상자를 해주고 부인들이 쌀 한 말씩 가져다 준다. 이것은 고조가 아니라 부조다"라는 설명을 붙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는 다른 계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상으로는 고조지만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계에서 고조도 하고 부조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약정된 고조만을 하는 종래의 다른 계결사체에서보다 훨씬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런 친목회가 담보해낼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성격의 친목회는 극심해지는 이촌의 압력하에서 종래의 쌀제와 같은 계결사체의 운영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호부조를 계원 수를 줄이면서 계속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적응양식으로 선택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유의 친목회의 등장과 활성화가 가져올 결과의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한 것 같다. 예시하면, 이촌에 대한 적응으로 계원 수를 줄이면서 계내의 친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친목회의 목적은 그 반대 급부로 계내와 계외를 포괄하는 전범위의 공리적 활동을 부수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리적 활동의 부수화는, 비단 이촌의 효과만은 아니고 가마제에서 보듯 의례와 생활양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7인친목회'에서처럼 표출적 측면의 강화가 계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주로 계원들의 의복과 같은 일상용품의 구입에 소모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그런 공리적 활동에 투하할 수 있는 여력이 계결사체 내부로부터 벌써 상당량 차단되는 탓에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우기 소수인들만의 계내로 집중된 친밀도의 증가는 계내의 결속과 계외와의 거리감이라는 일종의 파당(clique)의 성격으로 전화하면서 계결사체 참여자들만의 통합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격리의 효과만 조장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다음 장에서 이상의 추리를 포함,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완·종합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더 충실히 만족시켜보도록 하자.

V. 계결사체와 사회통합

1. 계결사체에 반영된 사회적 관계

우리의 주제인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그에 연관된 계결사체의 존재의미는 S리에 대한 여태까지의 분석과 논의에서 적어도 두 가지 토론해볼만한 경향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가마제나 화단체처럼 역사가 오랜 계결사체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 결성된 낙인제와 '7인친목회' 같은 계결사체에서도 계원의 구성에 있어서 마을내의 특정 문중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자의 두 계에서는 부씨 문중을, 후자들은 양씨문중을 계원으로 입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마제나 화단체, 낙인제는 계내(계원)와 계외(주민 일반)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리적 목적의 계결사체라는 데서 이들이 특정 문중을 배제한다는 것은 계원간의 표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친목회의 그것에 비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부씨 문중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지금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계결사체에서 특정 배경의 집단을 일정하게 배제·격리시킬 수 있다는 증거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들이 제외된 계결사체들이 마을 전체의 공익을 위해 결성됐고, 마을내 주요 집단 특히 문중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었다는 측면은 여전히 주목된다.

그에 비하면 양씨 문중은 상대적으로 논의할 거리가 적지 않다. 앞에서 검토했지만 이 마을은 마을내의 구역 곧 동네와 문중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겹쳐진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양씨 문중은 못골, 그 외의 성씨들은 마을내의 못골이 아닌 여러 동네에 거주하고 이러한 관계가 계결사체의 계원 구성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양씨 문중이 배제된 위의 낙인제와 '7인친목회' 간에 나타난 제법 높은 수준의 계원들의 중층화는 두 계의 성원들이 서로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지만, 이것은 양씨문중과 두고 있는 사회적 거리의 역방향에서 이루어짐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마을내에서 양씨 문중만이 유일하게 문중친목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회적 관계의 존속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여기에 양씨 문중의 사람들은 마을내 타성씨와 자신들이 구별된다는 점을 서슴없이 이야기하지만 타성씨의 주민에게서는 그런 담화가 쉽게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다. "지방턱"이 못골과 다른 동네의 경계로 지방턱 안쪽에 양씨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잘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든지, "마을의 이장직을 양씨들은 거의 다 맡아봐서 이제는 말을 사람이 없다"라든지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양씨 문중이 고립적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자기중심주의적 결속이 존재함을 표징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양씨 문중의 배제와 고립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양씨 문중의 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마제와 화단제가 해방전부터의 오래된 계결사체이고 불참해있는 낙인제와 '7인친목회'는 근래의 것이어서 이는 그리 멀리 거슬러 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반면에 "지방턱은 4.3전의 이야기"라는 담화로는 그런 배경이 더 오래 전의 것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그 배경과 원인이 어떻든, 현재의 상황은 농촌 사회에서 특정의 집단을 배제·격리하는 기제로 계결사체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배제하는 집단과 피배제의 집단 양자의 내부적이고 구획적 결속의 증대임을 부인치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다음으로 확인된 또 하나의 경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계결사체와의 가입과 참여의 정도는 특정인이 마을내에서 차지하거나 인정받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앞에서 사례분석을 하면서 검토했거니와 위의 첫번째 경향과 어울려 글머리에 소개했던 통합론과 격리론의 두 관점중 후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요컨대, 계결사체 참여 자체가 특정의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며, 때문에 높은 통합이나 사회적 유대의 강화는 마을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주된 참여자들만의 구획적 현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결사체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변화하는 농촌사회속에서 다시 어떤 모양새로 드러날 것인가? 특히 이촌과 같은 농촌사회의 문제가 이와는 어떻게 결부되며, 계결사체의 변화는 어떻게 전망될 수 있는가를 풀어보도록 하자.

2. 이촌과 계결사체의 변화

이 마을의 이촌은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60년대에 정증하다가 70년대 후반에 오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결사체의 형성과 운영방식이 변화한 과정을 따져볼 때 확인이 된다.

28) 지방턱은 앞의 약도에 나와 있듯이 못골에서 구관장으로 가는 길에 있다. 지방턱은 큰 바위가 마치 문지방의 턱처럼 못골과 마을내의 다른 동네를 분리해준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큰 바위로 인해 비가 와도 빗물이 못골로만 흐르고 마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년전에 마을 안길을 포장하면서 이 바위도 포장되어버려 지금은 지명만 남아 있다고 한다.

가마제는 이촌의 영향으로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어진 적절한 사례였다. 이에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전통적 혼례가 사라져버려 가마제는 그 일차적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촌은 가마제의 임원직 분담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가마제는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것은 현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라는 재산의 보유와 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사실 이촌의 영향력은 계결사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휘된다. 가마제는 그나마 소극적인 대응이라도 하고 있지만, 10명 또는 20명의 계원을 묶어야 성계되던 쌀제는 거의 해체되고 그것의 재생산도 불가능해졌다. 그런가하면 화단체나 산담점, 낙인제 같이 아직은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촌은 특히 공리적 계결사체의 유지와 존속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에 틀림이 없다. 1장에서 예견했듯이 대개의 공리적 계는 그 구성과 기능수행의 방법이 성원들의 노동력 결집을 기초로 이루어지기에 다량의 이촌은 구성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이촌은 다수의 성원이 있어야 결성될 수 있는 쌀제와 같은 계결사체의 존립에도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작용은 '7인친목회'에 전형화된 친목회 유형의 계결사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친목회는 쌀제의 상호부조적 기능을 계승하면서도 계원간의 친목도모라는 표출적 기능에 주된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계결사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친목회는 이촌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소수(5명 또는 7명 등)로도 구성가능하게 됐지만, 이러한 전략의 친목회는 계내의 보다 밀접한 사회적 관계의 유도롤 모색하는 한편에서 계결사체 자체를 일종의 과당으로 전화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런 개연성은 친목회의 등장이 이촌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양식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친목회를 통해 표면화될 수 있는 마을내 인간관계의 집단별 분산화와 집단간 파편화를 더 우려하게끔 한다. 다시 말해 친목회의 목적과 활동이 계내의 결집과 통합에 집중되어 그를 증진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증진되는 만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계외에 대한 배제와 격리도 강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²⁹⁾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개인적 수준에서 계결사체에의 가입과 참여율이 높다는 것과, 이 마을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7인친목회'에 다수 몰려 있었다는 앞서의 분석과 연결지우면 그리 설득력이 없는 추론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촌은 한편으로는 공리적 계의 존속과 재생산을 위협하면서 그의 소멸과 해체를 그리고

29) 예컨대 친목회에서 표출적 측면에 집착할 경우 그 활동으로 관광과 유람 등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계원들의 친목 강화와 전문을 넓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그런 활동이 주민간의 긴장과 갈등의 빌미일 수 있다. 그런 것이 농촌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상당한 낭비(최재석 1987: 19)"라는 다른 주민들의 비판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런 것 또한 그런 추론의 연장선상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표출적 계의 반작용을 결과하거니와, 농촌 마을의 사회 통합과 관련할 때 표출적 계의 대두와 활성화는 지금의 조건하에서는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고 전망된다.

VI. 결 론

이제 5장의 토론과 정리로 우리가 목적했던 과제에 대한 마무리가 일단 지어졌다. 5장에 정리된 바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중 특히 1988년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즉 농촌 마을에서의 계절사체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격리론의 입장에서 해명될 때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촌문제로 표현되는 농촌의 사회 변동이 계절사체에 끼칠 영향도 전망해보았다. 이러한 것들이 방법론적 다원화전략 곧,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양적 방법이 아닌 질적 방법에 의해 접근·분석됐다는 부분에도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는, 우리의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드문 제주도의 계절사체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든지, 제주도의 쌀제와 옥지부 쌀계의 차이를 규명한 것, 또 제주도의 4.3과 계절사체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 등에 의해 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다름아닌 질적 방법의 장점이 이를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와 부담까지 이상의 논의에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밝혀 차후 연구의 출발점으로 수용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겠다.

첫째는 본 연구가 수집·분석한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염려와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조사대상 마을의 선정부터 계문서의 수집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나서 면접과 관찰을 한 주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단계에 걸쳐 점검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자는 이 모든 경우를 고려했지만, 무엇보다 조사대상 마을의 선정과 수집·분석한 계문서의 대표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본다. 조사된 마을은 제주도의 전형적 농촌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조사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추려졌지만 이것이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분석된 계절사체들은 이 마을의 계절사체를 완벽히 파악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전제로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계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가장 흔히 열거되는 것들이었음을 알려준다. 곧, 분석된 계절사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그 마을에서 대표적이라고 인식되는 또는 중요시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를 한계짓는다.

둘째는 계절사체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조명하기 위해 가족과 친족관계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 나갔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매우 미진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는 지금의 과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겠다. 이 역시 차후의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이은죽,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 김봉옥, 1980 「고내리지」 제주: 고내리·재일본고내리친목회.
- 김삼수, 1964 「한국사회경제사연구: 계외 연구」 서울: 박영사.
- 김석준, 1986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논문집」 22집, 347-366.
- _____, 1987 “제주도 H리 주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새마을연구논문집」 4집, 제주대 새마을연구소, 77-87.
- _____, 1988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결사체 참여와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학」 22집 겨울호, 117-141.
- 김춘동, 1983 “이농이 소농의 재생산구조에 미친 영향”, 「인류학논집」 6집, 서울대인류학연구회, 169-205.
- 김필동, 1989 “조선시대 계외 구조적 특성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부만근 외, 1985 “제주도 중산간 유희토지의 개발·활용방향”, 「지역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170.
- 이순형 외, 1987 “마을단위 종합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12집 2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전국대학새마을연구소연합회, 345-387.
- 제남신문, 1979년 2월 19일자. “제주의 향사”.
- 진성기, 1975 “제주도민의 생활과 계”, 「문화인류학」 7집, 79-83.
- 최은영, 1984 “한국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계”, 「인류학논집」 7집, 서울대인류학연구회, 258-310.
- 최재석, 1969 “계집단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 집단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서울: 울유문화사, 583-599.
- _____, 1987 “이촌과 계집단”, 「교육논총」 16-17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13-136.
- 伊藤亞人, 1982 “계조직에 보이는 ‘친한 사이’의 분석”, 최길성 편역, 「한국사회와 종교: 일본인에 의한 사회인류학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31-61.
- Bryman, A., 1988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홍동식 외 역, 1992,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전문출판사.
- Burrell, G. and G. Morgan,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Education Books.

- Denzin, N. K., 1970 *The Research Act in Sociology: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London : Butterworths.
- Filstead, W. J. 1979, "Qualitative Methods : a Needed Perspective in Evaluation Research", in T. D. Cook and C. S. Reichardt (e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 Sage, 33-48.
- Merton, R. K., 1968 "The Bearing of Empirical Research on Sociological Theory",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 ed.) New York : The Free Press, 157-162.